

“영원한 타이거즈맨으로 응원 보내겠다”

‘타이거즈와 10년 동행 끝’ KIA 떠나는 ‘불펜포수’ 최규상

투수들과 호흡 맞추며 굿은 일 마다않는 ‘얼굴없는 불펜포수’

“어린 선수들 성장 보는 것 큰 보람... 두 번의 우승 값진 추억”

KIA 타이거즈와 10년을 함께했던 ‘불펜포수’ 최규상(33)이 새신랑으로 새출발한다.

이번 겨울 KIA에는 웨딩마치를 울리는 이들이 많다. 김주찬 벤치 코치, 서건창, 박준표, 김석환과 이진경 전력분석코치, 박지훈 전력기획팀 프로도 ‘새신랑’이 된다.

그리고 2014년부터 KIA의 불펜 포수로 활약한 최규상도 7일 서울에서 식을 올린다. 최규상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다. 새로 가정을 꾸리게 된 그는 가업을 이어받아 익숙했던 그라운드를 떠난다.

야구가 좋아서 시작했던 일, 아쉬움 속에서 지난 11월 일본 오카나와에서 ‘마지막 캠프’도 소화했다. 예전이었던 캠프에서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을 테지만 이번에는 하루하루가 아쉬웠다.

최규상은 “시원섭섭한 느낌이다. 더 함께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은 하다. 귀국날이 다가올수록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아쉬웠다”고 말했다.

불펜포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인다. 캠프기간에는 가장 먼저 경기장에 나오고,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자리이기도 하다.

최규상은 “불펜 포수는 선수들이 최상의 상태에서 훈련할 수 있게 경기장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배팅공도 던져주고, 공도 같이 잡는다. 투수들 컨디션 체크하고 공도 받는다”며 “캠프는 시즌 때보다 훨씬 바쁘다. 먼저 나와서 훈련 준비를 하고, 야간 훈련 세팅도 한다. 선발대로 먼저 들어와서 그물망이 찢어져 있으면 고치고, 바퀴 안 굴러가면 교체

도 한다”고 설명했다.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위해서 불펜 포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특히 투수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마운드 운영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이 크다.

최규상은 “공을 받고 솔직하게 안 좋으면 안 좋다.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해준다. 경험이 쌓이니까 투수들 품도 보게 되고, 공회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며 “처음에는 공도 못 받았다. 아마추어에 있다가 프로볼 받으니까 공도 못 잡아서 혼도 많이 났다”고 웃었다.

경기 중에도 불펜에서 많은 투수들의 공을 받아 보니 ‘직업병’이 있다. 최규상의 다리는 시즌 내내 멍투성이였다.

최규상은 “맞는 것은 순간의 아픔이다. 익숙해져서 2-3일이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됐다”며 “정말 아픈 곳을 맞으면 잠시 쉬었다가 공을 받기도 하지만 너무 아파하면 투수들이 미안해하니까 표현을 잘 못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들도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달리는 동료다. 그만큼 KIA에서 경험한 두 번의 우승은 최규상에게 값진 추억이 됐다.

최규상은 “2017년에는 KIA 온 지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알뜰하게 지내다 느낌이었었는데, 올해는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했더니 마음이 달랐던 것 같다. 우승 순간 기분 좋으면서도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눈물이나 났던 것 같다”며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한 마디씩 해주게 감사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KIA 불펜포수로 활약했던 최규상이 새신랑으로 새출발한다. 지난 11월 일본 오카나와에서 ‘마지막 캠프’를 치렀던 최규상이 후배들과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윤용준, 박창수, 최규상, 목고현.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도 최규상에게는 큰 보람으로 남았다.

최규상은 “워낙 야구를 좋아해서 한 일이라서 다들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다. 어린 선수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다”며 “(양)현종이 형도 그렇고 전상현, 장현식, 이준영도 생각한다. 최지민, 광도규도 작년과 또 났다. 처음에는 도구가 1이닝을 막을 수 있잖아 생각했는데, 경험이 쌓이다 보니 완벽한 투수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민이도 작년보다 올해도 좋아했고, 내년에도 좋아질 것인데 더 지켜보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또 “상현이는 전역 후 어느 순간부터 공이 좋아졌다. 원래 공이 좋았지만 중간으로 가면서 확실히 구위와 올라왔다. 품이 어떤지, 공이 어떻게 오는지 등을 많이 물어봤다”고 떠올렸다.

KIA와 광주를 떠나 새 출발선에 서게 된 그는 ‘영원한 타이거즈맨’으로 응원을 보낼 생각이다.

최규상은 “불펜 포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KIA 타이거즈라는 구단에 와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 행복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정도 많이 들었다. 제2의 인생 열심히 살아가겠다. 가끔 광주에 놀러도 오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1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2라운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와의 경기에서 페퍼스 테일러가 서버를 준비하고 있다. <KOVO 제공>

페퍼스 테일러 ‘적응은 끝났다’

흥국생명전 최대 득점 등 활약... 오늘 안방서 GS칼텍스 상대

장소연 감독 “상대 팀 위기지만 방심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

페퍼스축은행 AI페퍼스가 도드람 2024-2025 V리그 2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격력이 살아난 외국인 선수 테일러 프리카노를 앞세워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일 안방에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를 맞이했던 페퍼스는 세트스코어 0-3(22-25 23-25 18-25) 첫아웃 패를 당하며 3연승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수확은 있었다.

이날 팀 최다 17득점을 따낸 테일러는 모든 세트 고른 활약으로 51.52%의 공격 성공률과 32.0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테일러는 오픈과 킥오픈, 시간차, 후위공격 등을 다양하게 성공시키며 기대감을 키웠다.

흥국생명전에 앞서 치른 지난날 22일 한국도로

공사 하이패스와의 경기에서는 팀의 승리에도 테일러의 활약이 아쉬웠다.

이 경기에서 팀은 세트스코어 3-2 승리를 거뒀지만 테일러는 8득점(공격 성공률 23.68%)에 그쳤고, 범실도 양팀 개인 최다인 10개를 쏟아냈다.

팀 합류 초반 흔히 말하는 ‘외국인 한방’을 보여 주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냈던 테일러는 서서히 팀에 적응하며 기량을 발휘하는 모습이었다.

흥국생명과의 경기가 끝난 뒤 장소연 감독은 “테일러의 공격 비중이 높아졌고, 세트와의 호흡이 점차 맞아지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난 것 같다. 경기는 패했지만 테일러의 활약은 ‘수확’이라고 생각한다”며 테일러를 주목했다.

여자부 5위(3승 8패·승점9)를 유지하고 있는 페

퍼스는 6일 오후 7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GS칼텍스 서울Kixx와 경기를 치른다.

현재 7위(1승 10패·승점5)인 GS칼텍스는 최하위 탈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GS칼텍스의 아시아쿼터 와일러와 주포 실바가 지난달 28일 흥국생명전에서 각각 오른쪽 아킬레스건 파열, 발목 인대 손상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다.

휴식이 필요한 실바와 ‘시즌 아웃’이 결정된 와일러를 대체할 아시아쿼터 선수가 팀 공백을 메우기 전까지 팀의 부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장 감독은 상대 팀의 흔들리는 전력에도 불구하고 방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GS칼텍스가 외국인 선수 2명의 부상으로 전력 공백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내 선수의 짜임새가 나올 수 있다. 방심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101달러... 1억1300만달러 최향남 ‘물꼬’... 이정후 ‘잭팟’

한국 선수, 빅리그 포스팅 도전사

류현진·강정호·박병호·김하성

키움 김혜성 역대 9번째 도전



2012년 11월까지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한 선수는 최향남, 단 한 명뿐이었다.

최향남은 롯데 소속이던 2009년 MLB 진출을 추진했고, ‘101달러’라는 상징적인 금액으로 입찰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마이네리키 계약을 했다. 한국프로야구 KBO리그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최초 사례였다.

류현진(한화)은 2012년 11월, 역대 MLB 포스팅 금액 4위에 해당하는 2573만7737달러 33센트의 거액을 제시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서에 사인했다. KBO리그에서 MLB로 직행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또 다른 코리안 빅리거 탄생이 임박했다. MLB 사무국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4일 정오에 김혜성(사진)의 포스팅을 공식했다.

공·수·주에 모두 능한 김혜성이 MLB 구단과 계약하면, 역대 9번째로 ‘포스팅’을 통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선수’로 기록된다. 빅리그 보장 계약을 하면 7번째로 ‘KBO에서 MLB로 직행한 사례’를 만든다.

류현진 이전, MLB 포스팅 시스템은 한국 프로야구에 상치만 남았다.

1998년 3월 국내 최초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진출을 추진한 이상훈 해설위원은 원소속구단 LG에 2년 임대료 250만달러를 제시했던 보스턴 레드삭스가 정작 포스팅 후 60만달러로 액수를 낮추자 미국 진출의 꿈을 접었다. 이상훈 위원은 일본 주니치 드래곤스를 거친 뒤, 2000년 보스턴에 입단했다.

2002년 12월에는 삼성 임창용과 두산 진필중이 동시에 포스팅을 신청했지만 각각 65만달러, 2만5000달러를 제시받는 데 그쳤다. 삼성과 두산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둘은 국내에 잔류했다.

류현진이 물꼬를 튼 뒤에 포스팅을 통한 미국 진출이 늘었다.

2013년 류현진이 다저스와 계약했고, 2015년 강정호는 피츠버그 파이리츠, 2016년 박병

호는 미네소타 트윈스에 입단했다. 류현진은 2573만7737.33달러, 당시 환율로 280여원을 한화에 안겼다.

‘빅리거 사관학교’의 입지를 굳힌 키움은 강정호의 이적료 500만2015달러, 박병호의 이적료 1285만달러를 연이어 받았다.

2020년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와 2년 보장액 800만달러에 계약했다. 원소속팀 SK(현 SSG)는 이적료 160만달러를 받았다.

2021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년 2800만달러의 보장 계약을 한 김혜성은 키움에 이적료로 552만5000달러를 안겼다.

포스팅 규정 개정 후 가장 큰 규모로 계약한 코리안 빅리거는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지난해 12월 6일 1억1300만달러에 도장을 찍었다.

2027년까지 4년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뛰고 나서 윗아웃(잔여 계약 파기 후 자유계약선수 권리 행사)을 할 수 있는 조건이다.

윗아웃 권리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2027년까지 4년간 보장 액수는 7200만달러, 윗아웃을 택하지 않았을 때 전체 보장 액수가 1억1300만달러다.

이정후가 계약 기간 6년을 채우면 샌프란시스코는 1882만5000달러를 이적료로 키움에 지급한다. 이정후가 윗아웃을 하면 키움에 받을 이적료는 1267만5000달러로 줄어든다.

아직 빅리그 무대에 서지 못한 고우석(마이애미 말린스)이 LG에 안길 수 있는 이적료는 87만5000달러~161만달러다.

MLB 트레이드루머스닷컴은 김혜성의 계약 규모를 ‘3년 2-00만달러’로 예상했다. 만약 김혜성이 이 금액에 사인하면, 키움은 480만달러를 이적료로 받는다. /연합뉴스